

1988년도
치협 학술대상에
李春根서울치대 명예교수,
신인학술상에



洪淳鎬 경북치대 교수에게 각각 수여

치협은 1988년도 학술대상에 李春根박사를, 신인 학술상에 洪淳鎬교수를 선정, 지난 21일 서교호텔 회의실에서 그 시상식을 가진바 있다. 올해 학술대상을 수상한바 있는 李春根박사는 서울대 치대학장을 역임한바 있으며 현재 동교 명예교수이다.

구강외과학의 상징적인 인물로 평가되기도 하는 이춘근박사는 1941년 경성치전을 졸업하고 55~61년 대한구강외과학회 회장을 비롯 42년간 서울대 치대 교수로 재직한 치과의학계의 태두이기도 하다. 더구나 대한민국 의학박사를 1호로 취득한바 있고 치과계 박사학위의 길을 터놓았으며 "銅의 생물학적 연구"에 대한 6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박사학위 1호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 화제의 주인공인 이춘근박사는 "악골 이식의 실험적 연구" 등 25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고 수많은 제자를 양성하는등 치과의학계에 공헌한바 실로 지대하다.

신인학술상을 수상한바 있는 洪淳鎬교수는 현재 경북대 치대 보철학교수로 재직중이며 1979년 연세대 치대를 졸업, 지난 87년에는 모교인 연세대 대학원에서 「Pt.Co자석이 매몰된 Hydroxyapatite Ceramics이식체에 의한 성경치조골 조직반응에 관한 연구」의 논문을 발표하여 치학박사학위를 취득한바 있다.

대상을 수상한 李春根박사는 상금으로 받은 200만원 전액을 후학의 연구활동을 위해 기증한바 있다.



〈이중수 치협회장으로부터 상패와 부상을 수여 받는 李春根박사 내외분과 (上) 신인학술상을 수여받는 洪淳鎬교수 (下)〉